

제1장 장항읍(長項邑)

장항읍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북과 도계를 이루며 군산시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으로,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역동의 해양 도시이며 농업과 공업이 동시에 형성된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백제 때 설립군에 속한 갈대밭이었는데, 백제가 부여에 도읍을 옮긴 후 당나라와 왜국과의 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많은 선박의 기항지가 되어 차츰 발달해 갔고, 백제 멸망 시에는 많은 당나라 군사가 짓밟고 간 곳이기도 하다.

백제 멸망 후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전초기지이기도 했으며, 고려 때는 왜구들의 침범에 많은 고충을 받기도 한 수군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 충청도수군영의 만호영이 있었던 곳이며, 조선 말 서천군의 지역으로 서천고을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해서 남부면이라 했다. 백사, 남산, 합전, 분절, 역리, 비현, 솔리, 계산, 주정, 봉근, 장암, 항리의 12개리를 관할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서부면의 신산 외 18개리와 개곡면의 신리, 상루리, 동변리의 각 일부 및 동부면의 어리 일부, 마길면의 구절리 일부를 통합하여 서부면과 남부면의 이름을 따서 서남면이라 했으며, 죽산 외 12개리를 관할하다가 1929년에 간척지를 메워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서남면의 옥북, 옥남, 옥동, 장항의 4개리와 마동면의 산서, 수동의 2개리를 분리하여 장항읍으로 개편하고 간척지를 메운 곳에 새로 형성된 마을을 일본식 이름으로 삼기정, 화천정, 본정일정목, 본정이정목이라 칭하고 옥남리를 옥남정, 장항리 가운데 항리와 새로 생긴 마을을 합하여 송빈정이라 했다. 장암을 독립시켜 장암리라 하다가 1947년 8·15 해방과 더불어 삼기정을 신창동으로, 화천정을 화천동으로 본정일정목을 창선동1가로, 본정이정목을 창선동2가로 이름을 고쳤고, 상서리는 성수동, 수동리를 원수동으로 바꾸었다. 그 나머지 동리는 모두 동으로 고쳤으며, 현재는 리로 바뀌어 창선1리, 창선2리, 신창리, 장암리, 화천리, 송림리, 옥남리, 옥산리, 성주리, 원수리 등 10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송림리에는 30세대 70여 명이 거주하는 유부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곳에도 송림초등학교 분교와 발전시설 2동, 교회 2개소가 위치해 있다.

장항의 발전상을 살펴 보면 1930년 10월 장항항이 개항되고, 1931년 8월에 경남철도 장항선이 개통되었으며, 1937년 시가지 계획공사가 착수되었다. 1938년 10월 1일에 마동면 일부와 서남면 일부를 흡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52년 7월 5일에 국항으로 승격되었다. 1956년 10월 10일 서천경찰서가 이전되고, 1964년 7월 11일에는 명실공히 국제항으로 승격되어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

그 후 1989년 8월 10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의 지연으로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정부의 내륙산단 조성사업, 국립해양자연관 조성사업, 국립생태원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로의 부상이 기대되고 있다.

장항읍은 서천군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5천7백64세대에 1만4천6백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 10.18km², 임야, 2.89km², 기타 5.74km² 등 18.79km²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선 1리(昌善 1里)



창선 1리 전경

창선 1리는 장항읍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는 행정 중심지로 철길과 중앙로를 기점으로 바다 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마을은 백제 때 설림군(舌林郡)에 속한 갈대밭이었으며, 신라 때와 고려 때는 서림군(西林郡)에 소속됐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에 편입되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南部面)에 소속되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일대가 당초 갈대밭이었는데, 1929년에 개척하여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그 후 1938년 장항읍이 신설됨에 따라 본정(本町) 일정목(一丁目)이라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창선동(昌善洞) 일가(一街)라 했고, 1988년 동에서 리로 변경되면서 창선 1리가 된 마을이다.

-창선 2리(昌善 2里)



창선 2리

창선 2리는 장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항읍 시가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마을은 백제 때 설림군에 속한 갈대밭이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지역이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는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으로 1929년 갈대밭을 개척하여 새로 마을을 일구고 1938년 장항읍이 신설됨에 따라 본정이정목이라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창선동 2가가 되었다. 그 후 1988년 5월 1일 법률 4004호에 의해 동에서 리로 변경된 큰 마을이다.

창선 2리는 처음 개펄이었을 당시 성주리 산기슭을 깎아 매립한 지역으로 타지역에서 많은 사람

들이 모여들어 개간 사업에 참여했다 하는데, 공사시 인부들을 수용하던 집을 한밭집이라 했다 한다.

따라서 장항 시가지에서 최초로 인가가 형성된 곳이다. 새로 생긴 지역이라서 신부락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으며, 현재 19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항역과 버스터미널, 한전장항지점, 농협 군지부 장항지점, 수산물검사소 등의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 신창리(新昌里)

신창리는 백제 때 설립군에 속한 항구였으며, 1리와 2리로 구성되어 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으며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에 속했고,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으로 갈대만 무성하던 곳에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1938년에 이곳을 매립해서 새로 마을을 만들고 삼기정이라 하여 장항읍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신창동이라 했다가 현재 신창리로 되어 있다.

풍농 비료공장이 있는 자리를 비행장터라 하는데, 이는 일제시대 일인들이 3만 평의 부지에 비행장을 만들어 대륙 침략 기지로 활용하려 했으나 조성만 해 놓고 완성을 보지 못했다 하며, 지금은 일부가 논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을 신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전에 창선리 쪽에 서던 시장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시장은 5일 장으로 인근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이용했으나 장소가 비좁고 복잡하여 지금은 창선리로 이전했다.

이 마을에는 서천경찰서를 비롯하여 우체국, 군산해운항만청 장항출장소, 대한통운 등 관공서가 자리 잡고 있으며, 30%가 상가로 형성되어 있다.

- 장암리(長岩里)

장암리는 백제 때 설립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신라 때와 고려 때는 서림군 지역이었고,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에는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으로 길고 큰 바위가 있는 나루터라 해서 장암진(長岩津)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항리(項里)를 합쳐 장항리라 했다. 그 후 1938년 장항읍이 신설됨에 따라 장항리를 나누어서 항리와 새로 된 마을을 합하여 송빈정이라 하고, 장암을 그대로 장암리라 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장암동이라 했다가, 현재는 장암이라 부른다.

장암리는 제련소 굴뚝이 명물이었으나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럭키금속으로, LG니꼬로 회사가 바뀌어갔다. 그러나 아직도 제련소 굴뚝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마을을 굽어보고 있으나 철거설이 나돌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했었다.

장암리는 마을 뒷산에 신당이 있다 해서 당그때 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고려 때 장암진이라 하던 성터가 있는데 왜구와 크게 싸우던 성터이다. 조선 중종 10년에 영성을 크게 쌓았는데 성의 둘레가 1천3백 11자, 높이가 9자로 큰 바위에 웅거한 해문이 있는 요새였으나 지금은 모두 허물어져서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다.

그 성을 중심으로 성밖이라 부르는 곳과 성안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성안 동쪽으로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솟망매 또는 후망산이라 하며, 암망매 또는 망산, 망월산 또는 전망산이라 부르는 곳에 현재 LG니꼬가 자리 잡고 있다. 성밖 동쪽 모퉁이를 뱃섬모랭이라고 부르며, 솟망매 꼭대기에 두꺼비집처럼 생겼다 해서 두꺼비 바위 또는 성암, 마귀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성안 서남쪽에 있는 지역을 질구지라 한다. 이 지역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제곳, 제곳자리라고도 하는데, 지형이 말의 갈기처럼 생겼다 한다.

질구지 앞을 질구지개라고 한다. 여기가 지벌포(持伐浦)라는 포구로 백제 충신이 의자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다른 나라 군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거든 육군은 솟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지벌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쳐부셔야 한다고 말했으나, 왕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적이 쳐들어오도록 기다렸다가 나당연합군에게 망했는데, 그 지벌포가 바로 이곳이라 한다. 지벌포, 지화포, 손량, 장암포, 서천포, 백강, 진포 등 많은 이름이 있다.

당그때 서쪽에는 모래톱이 있는데 이곳을 모래터라 하며 모래짐질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서천 팔경중의 한 곳인 장암모각(長巖暮角)은 월포리 쪽에서 보면 장암리의 바위가 두 뿔의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그곳에 노을이 비쳐든 모습이 장관이었다 하는데, 풍류를 아는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기에는 지금의 모습은 너무 많이 변해 있다.

- 화천리(和泉里)

화천리는 백제시대 설립군 지역이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서림군에 소속되었었다. 조선 초에는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으로 갈대밭이었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항리에 편입되어 서남면에 속했다가 1930년 개척하여 새로 마을이 되었다. 1938년 장항읍의 신설로 화천정이라 하다가 1947년 화천동이라 했고 지금은 화천리라 부른다.

화천리는 물이 좋아 장수마을로 알려져 있다. 양철뜸이라 하는 지역의 서쪽이 용수마을이라 부르는 주 지역인데, 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며, 용수두, 용수리라고도 한다.

마을에 팽이산불이라 부르는 얇은 산이 있는데 나무가 무성할 때 그 형태가 고양이 같다 해서 그렇게 지칭하게 되었다 하며, 일명 고양이골이라고도 했다 한다.

마을에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전 장항공고)가 위치해 있고, 한솔제지, 군민체육관 등이 있으며, 팽이산불이라 부르는 곳에 1934년에 세운 장덕사라는 사찰이 있다. 학교 주변이라서 하숙생이 많아 한때는 우범지역으로 꼽혔으나 마을에서 내 자녀처럼 보살피자는 취지로 하숙집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지금은 안정되어 있다.

양철뜸이라 하는 곳은 간척지를 만들 때 생긴 곳으로 마을에 양철로 된 지붕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없어지고 양옥이 그 자리에 지어졌다.

현재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전 국회의원 김옥선 씨가 설립한 정의여중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교되었다.

- 송림리(松林里)

송림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마을이며, 신라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었고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지역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 지역이었고,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목처럼 생겼다 해서 목리, 또는 항리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장항리와 합하여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38년 장항읍으로 편입되어 간척지에 새로 생긴 마을과 합쳐 신(新) 송빈정이 됐으며, 1945년 송림동이었다가 현재 송림리가 되었다.

마을 언덕에 팽나무 네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에 해를 끼치면 재앙을 받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해안 쪽으로 방풍림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다.

지형이 목처럼 생겼다 해서 목리 또는 항리라 했다고 전하는 이 마을에는 솔밭만들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알마재라 하는 곳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솔만들, 간사지라고도 한다. 이는 솔밭이 있었고 1914년 갯벌을 개척하여 마을을 만들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전에는 앞이 바다였는데 유독 소나무가 무성했던 섬이었었다고 한다. 그 때 한 도승이 이곳을 지나다 솔밭을 가리키며 앞으로 큰 들에 들어앉을 솔섬이라 하여 솔만들이라는 지명을 지어주었다 하며, 그 후 그 예언이 맞았다고 한다.

목리 서남쪽 4km 지점에 섬이 있는데 이 섬을 대섬이라 하며, 큰 대섬 작은 대섬 등이 있다.

솔밭만들 서북쪽에 있는 산을 대항매라 한다. 이는 큰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이라 하며, 이 산 아래에 있는 마을도 산 이름을 따서 대항매라 부른다.

솔밭만들 서쪽에 있는 산을 알마재라 한다. 이 산에 금계포란형(金鷄包卵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알마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솔밭만들 서쪽에 있는 들을 행교들이라 하는데, 이는 학교 전용 실습지라서 학교들이라 하던 것이 변형된 것이라 한다.

남쪽에 유부도라는 섬이 위치해 있다. 이 섬은 임진왜란 때 어떤 부자(父子)가 피난을 갔는데 아버지는 유부도에 아들은 유자도에 피난을 갔다 하며, 이 섬은 아버지가 피난 왔던 섬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유부도에는 송림초등학교 유부도 분교장이 있으며, 몇 년 전까지 유부도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수심원이 있었으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현재 폐지되었다.

또한 유자도는 큰대섬 서북쪽에 있는 섬으로 임진왜란 때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무인도다. 유부도를 입우도, 유자도를 유좌도라고도 했다 한다.

송림 백사장은 매년 음력 4월 20일을 모래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래찜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 따라서 서천군에서는 송림 백사장을 개발하여 관광 서천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6월이면 백사장에서 대합축제가 열리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장항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송림리 어메니티 마을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림 백사장이 이 같이 널리 알려진 것은 이곳의 모래에는 염분과 철분, 우라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찜질을 하면 신경통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포영이었던 이곳이 유배지로도 이용됐고 이 근처에 고려 문신 두영철의 유배막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의 풍요(風謠) 가운데 ‘모래땅에 몸을 묻고 햇별이 스며드는 열기에 몸을 푼다’는 구절이 있다고 전하는 걸 보면 그 시절에도 모래찜을 즐겼던 듯 하다.

-옥남리(玉南里)



옥남리 마을 전경

옥남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곳이며,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솔리(率里)와 비두리(飛頭里), 합전리(蛤田里)의 각 일부를 합하여 옥포(玉浦) 남쪽에 위치해 있다 해서 옥남리(玉南里)라 하여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38년 10월 1일 장항읍에 편입되어 옥남정(玉南町)이라 했는데,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옥남동이라 부르다 다시 옥남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옥남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다. 1리는 옥포 남쪽이라서 옥남동이라 부르며 살리 또는 솔리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거느리고, 곡식을 거느리고, 부자가 떠나지 않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살리라 부른다고 하며, 또한 소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솔리라고 한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솔리 동쪽에 위치한 산을 누에머리라고 하는데, 이는 산의 모양이 누에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누에머리 아래에 있는 마을을 산 이름을 따서 누에머리, 또는 잠두(蠶頭)라고 부른다.

2리는 옥남천이 마을 앞으로 흐르며, 날머리라고 하는 중심마을에 서아시아와 동아시아가 있고, 마을 앞 들 가운데에 있는 만들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으며, 옥북리 경계에 있는 당산재 너머와 장가매 등이 있다. 장가매 위에는 애멀재라는 지역이 있으며,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중간쯤에 새뜸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날머리는 비두리라고도 하는데, 평사낙안형(平沙落雁形)의 명당자리가 있다 해서 비두리, 날머리라고 부른다고 전해진다.

마을에 추태기, 추만기 형제의 효자 정려문이 있으며, 이 마을에는 용궁 전씨가 많이 살고 있다.

-옥산리(玉山里)

옥산리는 송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들녘 건너 장항읍 시가지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백제 때 설림군 소속이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 때는 서림군에 속했던 곳이다. 조선 초 1413년

(태종 13)에 서천군이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계산리(鷄山里), 가정리(佳亭里)와 봉근리(峰根里), 비두리(飛頭里)의 각 일부를 합하여 옥포 동쪽에 위치해 있다 해서 옥동리(玉東里)라 하여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38년 10월 1일 장항읍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옥산동이라 하였다가 현재 옥산리라 부르는 곳이다.

옥산 1리는 큰봉근, 작은봉근, 안태, 대추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근은 마을에 보금출갑형(寶金出甲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지관들이 자주 찾는 마을이라 하며, 무관이 크게 나설 마을이라 하여 봉근리(峰根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안태는 안대, 내대라고도 하는데 작은 가정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하며, 대추말은 작은 지역이지만 장자(長者)가 나올 마을이며 어린 장자가 나온다는 뜻에서 대추말, 대추 등으로 불렀다 한다.

중태산에 테피식 산성이 있는데, 북벽과 서벽 쪽은 훼손되었으나 동벽과 남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정상부에 많은 민묘가 있다. 이밖에도 중태산은 옛날 장군들이 싸우다가 칼로 산봉우리를 쳐서 갈라졌는데 이를 테뎠다 해서 테피산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

옥산 2리는 크게 큰 가장말, 작은 가장말, 당메로 나뉘어진다.

가장말 또는 가정말은 마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들 가운데 정자를 세운 듯한 마을이며, 우아한 트랙 같은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가장말에는 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당메라 부르며, 산 아래에 자리 잡은 곳을 계산, 계산포라 한다. 이는 산 모양이 닭의 벼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또한 닭뿔이 변하여 불려지는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지형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명당이라 하며, 그 닭이 알을 까서 지금의 송림초등학교가 생겼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 주민은 가정말 또는 가장말이라 부르는 뜻이 그동안 마을 교통편이 안 좋아 장항 시가지에서 가장 멀다는 뜻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마을에 1천모랭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옛날 그곳에서 곡식 1천석을 실을 수 있는 배를 제작하여 그 배가 마을 앞쪽을 운항하다 파선이 되었다 하며, 그곳이 닭의 부리에 해당하는 곳이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큰 바위가 그곳에 있어 좌초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었다. 지금도 당메와 옥산1리 사이에는 독이 자리 잡고 있다.

당메 봉우리에 옛날 면사무소 터가 있는데, 이곳은 서남면사무소가 있었던 터로 서남면사무소는 원래 지금의 마서면 계동리에 있다가 1932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1938년 장항읍을 신설할 때 다시 계동리로 옮겨가고 터만 남았다고 한다. 송림초등학교가 생기기 전 이곳에 투표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마을 앞이 바다였었던 관계로 조개잡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 했으나 지금은 95%가 농업에 종사하고 수도작을 주로하는 마을이다.

-성주리(聖住里)



성주리 전경

성주리는 4리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로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고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의 지역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 지역이었으며 조선 말 서천군 마길면의 지역으로 성주봉(聖住峯) 아래에 있다 해서 성주골 또는 승취골이라 하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두리(元斗里), 연모리(蓮毛里), 횡산리(橫山里) 일부를 합해 산서리(山西里)라 하여 마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8년 10월 10일 장항읍에 편입되었고, 1948년 산서리를 성주동으로, 이어 성주리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성주 1리에는 전쟁 당시 혈액병원이 있었다 해서 피병리라 하는 지역이 있으며, 이곳을 연모리, 또는 연모노리(蓮毛老里)라고 하는데 이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연모리 서남쪽에 있는 지역을 구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형이 구렁이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마을 산에 영락정이라는 팔각정이 있었으나 1997년도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됐다. 마을이 아인빌라를 비롯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산언덕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에는 아래까지 바다였다 한다. 주거지의 3분의 2가 공유지로 되어 있어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고 있으며, 공원 부지가 많아 땅을 사기도 어렵고 집수리 등 개발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성주 2리는 장항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원두골과 정지말로 구성되었는데 원두골은 옛날 이곳에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머리 쪽에 마을이 있다 해서 원두골이라고 불렀다는 설과, 마을 뒷산에 묘가 세 개 있는데 그 묘를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마치 원두꽃과 같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정지말은 옛날 정자나무가 있어서 나뭇가지가 늘어서 풍취를 돋우는 마을이었다 하며, 물이 지나다 멈춰진 곳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설이 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물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아서 주변 마을에서까지 길어갔으나 주거지가 집중되면서 물이 부족하기 시작했다 한다.

성주 3리는 뒤로 동산메가 감싸주고 옆으로는 왕개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을 비그매 또는 비끼매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을에 있는 산이 비껴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하며, 횡산(橫山), 횡산리, 산서리(山西里) 라고도 불렀다.

이 지역은 장항읍이라고는 하나 시가지와 떨어져 있어 전형적인 농촌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 서아시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원수 3리와의 사이에 왕개산이 있으며 도인정사라는 절이 있다. 동아시 뒤에 있는 동산메라는 산에서는 마을의 무사 안녕을 비는 당산제를 지내기도 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성주 4리에는 장항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4리는 돌산의 머리 쪽에 위치했다 해서 돌머리라 부르는 지역과 옛날 역관사가 있어 사택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아래뜸이라는 지역, 노점상이 많이 모여 산다 해서 장사굴이라 부르는 지역, 주막이 있었다는 주막거리, 서당이 있었던 서당굴, 또는 망솔이라 부르는 지역 등이 있다.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화합이 안 되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매년 각 반 대항 운동회를 개최할 정도로 화합 잘 되고 있는 마을이다.

- 원수리(元水里)



원수리 전경

원수리는 백제 때 설림군 소속이었고, 신라 때와 고려 때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었으며 조선 말 서천군 마길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수여리(水餘里), 원모리(元毛里), 굴항리(屈巷里), 위포리(鰲浦里), 용당리(龍唐里)를 합하여 수동리(水東里)라 하여 마동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38년 장항읍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광복 후 원모리와 수여리의 이름을 따서 원수동이라 했다가 원수리가 되었다.

원수리는 4리로 구성되어 있다.

1리는 원래 옛날 장터가 있던 마을이며 6·25 난민 수용소가 있던 곳으로 장항중학교와 등기소가 자리 잡고 있다. 원 거주민이 50% 밖에 되지 않아 타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을 화합이 잘되고 있는 곳이다.

2리는 용당리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는 마을에 용당산이 있기 때문이며, 용당산에는 체육공원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마을 앞에 있는 나루터를 1931년경까지 용당나루라고 불렀다 하고, 그 후 이곳에서 군산까지 도선을 운항했었다 한다. 갈바탕이라고 하면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드세었으나 지금은 예전과 달라 안정되고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이다. 전 국회의원 김옥선 씨가 이 마을

출신이며, 에베네셀 모자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리는 구룡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구룡말은 굴항리 또는 구령말 이라고도 부르는데, 왕제사 아래 자리 잡고 있으며 옛날에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아홉 마리의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청룡과 홍룡으로 나누어진 이무기들은 단정하게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용이 될 때는 하늘로 올라가며 청룡 홍룡이 짝을 지어 승천했고, 맨 마지막 청룡이 혼자 남아 승천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승천하는 청룡의 옆에는 선녀가 날고 엄숙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산 아래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한다.

모금애라는 지역은 모금외, 가치멸이라고도 하며, 옛날 마을에 모과나무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미내미는 무네미라고 하며, 산줄기가 낮아서 이쪽의 물이 저쪽으로 넘어 가게 된 주변에 자리 잡았다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말은 용당 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마을에 세 봉우리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삼홀이라고도 한다.

왕제산은 구룡말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왕티라고도 하며 이 지역의 가장 큰 산이다. 옛날 백제왕이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던 산이라 한다. 마을에 호산나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다.

4리는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원수 산업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금강 하구둑과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은 원모르리, 원모노리라고 부르는데, 이 마을에 주마탈안(走馬奪鞍)의 명당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고순개라 부르는 지역은 마을 지형이 고슴도치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위포라고도 한다. 안쪽에 자리 잡았다 해서 안뜸이라 하는 지역과 소치라는 지역이 있다. 건너뜸과 방죽골 또는 신탄뜸이라 하는 지역은 옛날 방죽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농공단지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다. 어업소득이 높은 마을로 대하, 꽃게, 실뱀장어 등이 소득원이다.

제2장 서천읍(舒川邑)



서천읍 전경